



건축 디자이너 김종호

가장 트렌디하면서도 지역적인!

건축 디자이너 김종호는 단언했다. “나는 인터내셔널리즘을 반대합니다.” 지역적인 코드 없이 전 세계 도시가 같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베이징과 서울과 뉴욕은 엄연히 달라야 하지 않겠나. 유러피안 클래식 무드가 뒤덮은 정체불명의 하우스를 마주하면 그도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그 웃음 안엔 날카로움이 서려 있다.

에디터 | 정명호 · 사진 | 노현우



○ 리시대 건축가 가운데 가장 트렌디한 디자인을 소화하는 이를 꼽으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꺼이 김종호의 명함을 꺼내들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부터 서초동 대שא이크로비스타, 분당 아이파크, 염곡동 내추럴 하우스, 한남동 글라스 하우스, 그리고 호텔 파크 하얏트에 이르기까지 건축 설계와 실내 디자인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건조한 도시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축마다 그의 손길을 닿은 걸 보면 그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가가 아닐까?

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건축에서 지역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늘 고민인 거죠.” 서울과 베이징과 상하이 곳곳에서 유리피안 클래식 무드로 치장한 정채불명의 하우스를 목격할 때마다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궁금해진다. 김종호의 격의 없는 웃음 뒤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미국적인 현실적 실용주의와 이탈리아적인 미학적 접근이 잘 조화를 이룬 독일 건축들을 흠모한다는 김종호는 그 적절한 앙상블 위에 아시아적인, 혹은 한국적인 지역적 정체성을 불어넣고 싶다



1 김종호는 스타일리시한 건축가다. 2 트렌디하면서도 근엄한 델코웨어 사옥. 3 김종호다운 구조가 돋보이는 역삼동 주택. 4 한일카페트의 여유로운 공간. 5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업실 디자인 스튜디오의 사인. 6 현대산업개발 사옥.

새벽에 일어나 오전 11시경이면 중요한 업무를 거의 마친다는 이 영민한 건축 디자이너(그는 ‘건축가’라는 한정된 직함보다 ‘디자이너’라는 분방한 호칭을 선호했다)는 늦은 오후 그의 포트폴리오만큼이나 트렌디한 차림으로 취재진을 만났다. 스타일리시한 맥빛 데님과 프린트가 색다른 티셔츠, 고급스럽고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한 재킷으로 마무리한 그의 센스가 단박에 범상치 않은 취향을 드러낸다. “제 별명이 ‘김 대리’ 예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택배 기사들 안내까지 도맡고 있거든요.” 격의 없는 웃음은 연출이 아니었다.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시각이 다가와 검은색 슈트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누가 어떻게 봐도 상관없다는 것이 그의 경쾌한 지론이었다.

물론 제아무리 편한 차림으로 움직이고, 트렌디한 스타일을 추구하더라도 자기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기본 조건을 그는 잊지 않는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탈리아의 가구 박람회와 바닥재 전시, 두바이의 7성급 호텔과 미국의 리빙 로드쇼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쇼핑몰 프로젝트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하고, 신소재로 마감하며 건축 디자인에 신선함을 불어넣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일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아파트나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는 일은 옹지 못해요. 공간 디자인은 파인 아트가 아니니까요. 디자이너 마음에 흡족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용자의 손때가 묻어날수록 좋은 작품이 되

고 했다. 이미 길들여진 서구식 주거 오피스 환경에서 토착적인 문화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필립 스타크도 일본의 춘화를 응용할진대 우리는 우리 것을 너무 무시한 경향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 건축 분야가 양적으로 급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훌륭한 건축가 선배와 동료도 많고요. 주거 분야 디자인에선 단연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정도죠. 하지만 해외 사례 연구를 단시간 내에 끝내다 보니 일본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되는 프로젝트들이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됩니다.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 콘텐츠 없이, 각 분야의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빨리 완공시키려고만 하는 풍토가 아쉬울 따름이죠.”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단계별 계획을 밟아 건축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고 싶은 것이 이 활기 넘치는 건축가의 바람이다.

그는 자신의 축조물 가운데 아이파크의 펜트하우스 설계와 양수리의 개인 갤러리 하우스를 첫손에 꼽는다. 그 길고 긴 고민과 그에 따른 완성도에 만족스럽다던 김종호에게 서울에서 마음에 드는 해외 건축가의 작품을 던지시 묻자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현대산업개발 사옥을 꼽았다. “단순히 랜드마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끄러미 바라보면 지친 도시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선물합니다. 바둑판 같은 도시가 숨 쉬는 것 같지 않아요?” 현대산업개발 사옥 프로젝트에서 그는 1층 로비 설계 디자인에 참여했다. 자신이 디자인한 건축물이 도시를 숨 쉴 수 있게 만든다는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지금 자신의 영역을 한 뼘씩, 그러나 제대로 넓혀가는 중이다. ㉞